

“나 떨고 있니”...연예계 삼킨 ‘미투 쓰나미’

조재현·조민기 성추행 의혹으로 확산
진위 미확인 오달수·곽도원도 휘말려
루머·여론몰이 인한 마녀사냥 우려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연예계를 삼켰다. 피해 고발과 폭로가 잇따르고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와 감독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권력과 지위를 악용한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의 수준 낮은 성의식의 민낯에 대중도 충격에 빠졌다.

서지현 검사의 고백으로 촉발된 검찰 내 성폭력 고발을 시작으로 이운택 연극연출가에 이어 배우 조민기를 통해 연예계 전반에도 ‘미투’ 움직임이 본격 확산됐다. 청주대 연극영화과 교수 시절 제자들을 상대로 벌인 성추행과 성희롱 행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적인 증언으로 폭로돼 조민기는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

배우 조재현도 22일 의혹에 휘말렸다. 조재현은 처음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연기자 최을 등이 실명을 내걸고 피해 폭로를 이어가자 억울함을 호소한지 이틀 만에 사과문을 내고 “나는 죄인이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비단 배우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화 ‘흥부’의 조근현 감독은 연기자 지방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원룸 작업실에서 일대일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여배우에게 연기력은 중요치 않다”는 발언 등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가 22일 드러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연예계로 확대되고 있다. 조민기에 이어 영화 ‘흥부’ 조근현 감독, 조재현(왼쪽부터)까지 잇따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지위를 악용한 이들의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제2의 피해까지 만든다. 한창 극장서 상영 중인 ‘흥부’는 24일 박스오피스 10위로 추락, 사실상 45만 관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

재현은 출연 중인 tvN 드라마 ‘크로스’ 하차를 결정했지만 주연으로 비중이 상당한데다, 이미 촬영을 마친 내용이 있어 제작진은 당황함 속에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아울러 5월 방송

예정인 tvN 토일드라마 ‘무법 변호사’의 캐스팅도 취소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견 영화음악감독 A씨도 ‘미투’ 폭로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 과거 함께 작업한 조감독이 피해를 폭로했다. 배우와 감독, 음악감독에 이르는 전방위 성폭력 피해 폭로가 연예계 이슈를 집어삼키는 분위기다.

●확인되지 않은 ‘여론몰이’도 위험수위

진위 확인보다 의혹에 먼저 휘말려 ‘가해자’로 지목되는 배우들도 있다. 배우 오달수는 21일 이운택 연출가의 성폭행 기사에 달린 익명의 댓글을 통해 과거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다. 현재 해당 댓글은 삭제됐고, 구체적 폭로가 없는데다 오달수 본인도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아 진위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운택 연출가와 활동했던 배우 곽도원도 25일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통해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곽도원 측은 “허위”라고 선을 긋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예계를 넘어 문화예술계와 종교계까지 ‘미투’ 폭로가 잇따르면서 이제 견잡을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 되고 있다. 피해를 당당히 밝힌 용감한 고백에 대중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한다. ‘미투’ 열기에 편승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미투 명단’이라는 미확인 리스트가 퍼져 루머를 확산시키고 있다. 여론몰이 역시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또 내려 간다

세븐틴·여자친구 5월 일본 데뷔
방탄·트와이스 후발 주자로 기대

‘대세’ 케이팝 가수들이 잇따라 일본 진출을 선언했다.

보이그룹 세븐틴과 걸그룹 여자친구가 나란히 5월 일본에 데뷔한다. 국내는 물론 현지에서도 일찌감치 팬덤을 형성한 이들이기에 정식 데뷔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신한류’를 견인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로 나선 이들의 합류로 현지의 케이팝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는 3월 국내 새 앨범 활동을 끝내고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간다. 25일 소속사 쏘스뮤직에 따르면 현지 음반 제작사인 캄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고 5월 데뷔 음반을 발표한다. 국내에서 ‘파워 청순’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진 만큼 현지에서도 여자친구만의 청순하면서도 파워 넘치는 퍼포먼스로 팬들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소속사 측은 “한국 시장에서 ‘유리구슬’ ‘오늘부터 우리는’ ‘시공간을 달려서’ ‘너 그리고 나’ ‘핑커편’ 등 줄줄이 히트곡을 냈고, 케이팝 대표주자로 활동해온 만큼 현지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븐틴은 5월30일 현지시장에 정식 데뷔한다. 수년전부터 일본에서 공연과 팬미팅을 벌이며 정식 데뷔를 준비해온 이들은 데뷔음반 발표 소식을 팬들에게 직접 전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21~22일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단독콘서트에서 세븐틴은 “저희 꿈을 같이 따라와 달라”며 데뷔를 알렸다. 특히 정식 데뷔 전 시작한 이번 공연도 이들 동안 총 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앨범 ‘디렉트스 컷’도 발매 직후 타워레코드 주간 종합판매차트 4위, 오리콘차트 주간 종합판매차트 2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속사 플레디스 측은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인데도 요코하마 아레나를 전석 매진시켰다”며 “데뷔 후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세븐틴은 오사카와 나고야 등지에서도 투어를 이어가며 정식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극장가에 부는 ‘일본원작’ 열풍...왜?

우연의 일치일까, 의도된 흐름일까.

일본소설과 만화를 원작으로 한 한국영화가 최근 늘고 있다. 공공로케도 이들 영화의 공개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극장가에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강동원의 ‘골든 슬럼버’를 비롯해 28일 개봉하는 김태리의 ‘리틀 포레스트’와 3월 14일 공개하는 손예진·소지섭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이미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저마다 일본소설과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로,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하다.

이런 일본 작품들이 국내서 영화로 재탄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동안 한국영화가 주력한 스틸러와 범죄액션 등의 장르가 더는 관객에 소구되지 않는다는 ‘한계론’ 속에 기존과 다른 이야기를 찾는 시도가 일본 작품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년 전 일본영화 ‘열쇠도둑의 방법’을 리메이크한 유해진의 ‘럭키’가 698만 관객에 성공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확산됐다. 김지운 감독이 정우성·강동원과 촬영중인 ‘인랑’ 역시 일본 만화가 원작이다.

일본원작을 토대로 한 영화들은 신선한 이야기와 정감어린 정서를 담아낸다. ‘리틀 포레스트’는 도시생활에 지친 주인공이 고향 집으로 내려와 사계절 농사지는 작품로 밥을 짓고,



일본 원작 리메이크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위)와 ‘리틀포레스트’.

고향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비슷한 현실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20~30대가 특히 공감할 영화다.

‘골든 슬럼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후보 암살 누명을 쓴 주인공과 친구들의 ‘우정의 연

골든 슬럼버·리틀 포레스트 등
검증된 이야기·제작 부담 줄어

대’가 동결함을 안긴다. 향수를 자극해 추억을 떠올리게 했던 최근 몇몇 한국영화들과는 결이 다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오랜만에 나오는 멜로로 주목받는다. 멜로는 최근 한국영화가 가장 취약한 장르이기도 하다.

이런 흐름은 현실적인 이유도 한몫 한다. ‘리틀 포레스트’ 제작사 영화사수박 관계자는 “투자 유치나 캐스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이야기라는 점은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일본 원작은 제작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짚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과정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까다로운 소설 및 만화 판권 구매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계약이 성사된다고 해도 어떻게 한국적 색을 덧입힐지는 핵심 과제다. 강동원 역시 “‘골든 슬럼버’ 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판권 구매였다”고 밝혔다.

이질감을 줄이는 ‘각색’도 관건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원작 가운데 상당 부분의 설정을 국내 정서에 맞게 바꿨다. ‘리틀 포레스트’ 역시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진 영화는 두 계절씩 담아 2부작으로 제작됐지만 국내선 한 편으로 완성했다. ‘리틀 포레스트’의 임순례 감독은 “원작은 일본적 감성이 강해서 이를 한국적으로 바꾸는 일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로 확정되면 그의 활동량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전현무가 방송가를 ‘점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친밀감이다. 게스트로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 시청자의 시선에 익숙해졌고, 서서히 메인 진행자로 성장했다. 아나운서 출신이면서도 뛰어난 예능감각을 발휘해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히 굳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청자와의 친밀함이 현재와 같은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다.

2012년 KBS 아나운서를 사직하고 프리랜서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호불호가 갈렸던 대중의 반응도 현재는 ‘호감’으로 기울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숫자뉴스

83%

H.O.T. 재결합 무대를 보여준 MBC ‘무한도전’-토토가3’ 시청률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4일 방송된 ‘무한도전’은 1부 12.5%, 2부 13%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0.6%로, ‘무한도전’은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해시태그 킷



신민야표 ‘공방 패션’의 정석

배우 신민야가 ‘공방패션’의 정석을 선보였다. 한 패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떠난 신민야는 무릎아래까지 내려오는 코트를 입고 인천공항 출구장으로 들어섰다. 봄을 기다리는 듯한 노란 구두와 초록 핸드백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이를 본 ‘절친’ 공효진은 “아유 예뻐라~ 언니 선물 사와!”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신민야 #공방패션 #파리

연예뉴스 HOT3

블랙 팬서, 11일만에 400만 관객

‘블랙 팬서’가 개봉 11일째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블랙팬서’는 24일 30만7410명을 동원, 누적 424만3490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2월 최고 흥행 외화이자 612만 관객 동원의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2015)보다 15일이나 빠른 속도다. 또한 역대 대한민국 마블 흥행 4위이자 700만 관객 동원작 ‘어벤저스’(2012)보다 빠르다.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점령한 ‘블랙 팬서’는 역대 2월 외화 및 2018년 개봉 영화 최단 기간 100만, 200만, 300만, 400만 돌파 기록을 모두 같이 치렀다.

트와이스 ‘캔디팝’ 40만장 출고

트와이스가 7일 발매한 일본 두 번째 싱글 ‘캔디팝’이 출고량 40만장 및 오리콘 누적 포인트 30만을 돌파했다. 25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캔디팝’은 23일 기준 출고량 40만 2319장, 오리콘 누적 포인트 31만1929를 기록했다. 트와이스가 음반 출고량 40만장 및 오리콘 누적 포인트 30만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캔디팝’은 발매 첫 주 빌보드 재팬 집계 기준 30만 3746장의 판매고로 싱글 1위를 비롯해 조화수, 스트리밍, 동영상 재생 부문 등 4관왕으로 빌보드재팬 핫100 종합 1위에 올랐다.

엠블랙 출신 지오, BJ로 변신

그룹 엠블랙 출신 지오가 인터넷방송 BJ로 변신했다. 지오는 24일 아프리카TV를 통해 첫 방송을 진행하며 “앞으로 BJ로 활동하겠다.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1인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BJ 방송은 2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다. 엠블랙 해체에 대한 질문에는 “엠블랙은 해체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 공백기다. 멤버 2명이 군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오는 1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